
2025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보고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배우다! 뉴질랜드를 가다!!”

재단법인
제주삼다수재단

목 차

I. 연수개요	1
II.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2
III. 연수국가 현황	3
□ 뉴질랜드 일반현황	3
□ 방문도시 관련 정보	5
○ 오클랜드: 뉴질랜드의 관문도시	
○ 해밀턴: 정원과 교육·연구의 도시	
○ 로토루아: 지열과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	
○ 마타마타: 농촌 풍경과 문화 콘텐츠 도시	
○ 타우포: 호수와 자연 경관의 도시	
○ 통가리로: 세계자연유산 국립공원 지역	
○ 황가누이: 자연과 법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도시	

IV. 주요 방문지	8
□ 오클랜드	8
○ 오클랜드대학교	
○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	
○ 씨 라이프 켈리 탈튼 수족관	
○ 마운트 이든	
□ 해밀턴	13
○ 해밀턴 가든	
□ 로토루아	14
○ 아그로돔	
○ 스카이라인 로토루아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빌리지	
○ 레드우드 수목원	
□ 마타마타	18
○ 호비튼 무비 테마파크	
□ 타우포	19
○ 후카 폭포	
□ 통가리로	20
○ 통가리로 국립공원	
□ 황가누이	21
○ 황가누이 강 제트보트 투어	
○ 듀리힐 엘리베이터 전망대	
□ 도시 자유탐방	24

V. 연수결과(평가) 27

- 사업총평
- 사업 성과 및 제언
- 참가자 소감

【 붙임자료 】

- 참가자별 연수 결과보고서 각 1부(별첨)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부 32
- 만족도 조사 설문지 1부 38
- 워크숍 활동 결과 1부 42

2025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보고서

I. 연수개요

○ 연수목적

- 뉴질랜드 환경·생태 분야 우수사례 현장 학습을 통한 제주 청소년의 글로벌 환경 인식 및 국제적 리더십 역량 강화 지원
- 환경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황가누이 강 사례 등 뉴질랜드 선진 환경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환경 분야 진로탐색 기회 제고

○ 연수기간: 2025. 12. 20.(토) ~ 12. 27.(토), 7박 8일

○ 연수국가: 뉴질랜드(7개 지역)

※방문지역: 오클랜드, 해밀턴, 로토루아, 마타마타, 타우포, 통가리로, 황가누이

○ 연수인원: 총 12명(학생 10명, 인솔자 2명)

구분	연번	이름	성별	소속	학년
참가자	1	곽지효	여	표선고등학교	1학년
	2	김세운	남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11학년
	3	김소라	여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학년
	4	김예연	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5	김정욱	남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6	박이현	여	신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7	서하울	여	표선고등학교	2학년
	8	석지원	남	세화고등학교	2학년
	9	양서윤	여	제주고등학교	1학년
	10	허예은	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3학년
인솔자	11	강승희	여	제주삼다수재단	사업담당자
	12	김보현	여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업담당자

※연수 위탁 여행사 담당 가이드 1명 전체(제주↔뉴질랜드) 일정 추가 동행

○ 연수내용

- 뉴질랜드의 생태 체험 및 환경정책의 이해
- 지역별 문화·유적 탐방
- 연수 기간 동안의 경험, 배운 점, 느낀 점 등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개인 및 팀별 미션 수행 워크숍 진행

《 워크숍 내용 》

구분	미션명	주제/내용	형식	
개인 미션	1	나를 소개해줘	자기소개 및 연수에 임하는 다짐	단어 3개 + 다짐
	2	오늘의 한 장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감정	사진 + 이유
	3	오늘의 한마디	생태법인, 환경보호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생각
	4	글로벌 리더	나의 성장 다짐	성장 다짐
팀 미션	1	어디일까요? (해밀턴가든)	퀴즈를 통해 방문지를 추리하고 팀별 현장사진 촬영 제출	단체사진, 장소명, 소감 1문장
	2	한 줄로 말하는 황가누이	황가누이 시내 자유탐방 중 의미 있어 보이는 장소 또는 아름다운 순간 기록	
	3	어디일까요? (레이우드수목원)	퀴즈를 통해 방문지를 추리하고 팀별 현장사진 촬영 제출	

○ 조 편성표

구분	조이름	인원	이름	비고
1	와카	4	곽지효, 김세운, 양서윤, 허예은	
2	키위새	3	김예연, 김정욱, 서하울	
3	삼소수	3	김소라, 박이현, 석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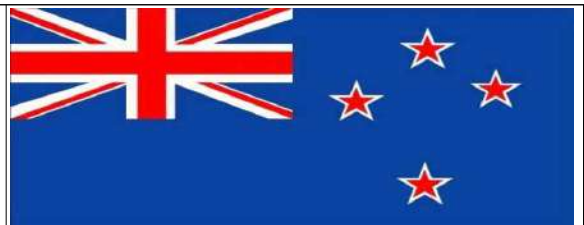
Ⅱ. 연수일정 및 주요내용

날 짜	연 수 지	교 통 편	시간	연 수 일 정	비고
제1일 (12/20) 토	제 주 제 주 서 울 인 천	KE1218 수송버스 KE411	11:00	제주 공항 3층 대한항공 카운터 앞 집결	
			13:25	제주 공항 출발	
			14:40	김포 공항 도착 후 인천으로 이동	
			18:25	인천 영종도 공항 출발 (약11시간35분소요)	
				HOTEL : 기내 숙박	
제2일 (12/21) 일	오클랜드 해밀턴 로토루아	전용차량	09:55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및 가이드 미팅 중식 후 ▶ 오클랜드 대학 캠퍼스 투어 ▶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 탐방 해밀턴으로 이동하여 ▶ 해밀턴 가든 탐방 후 로토루아로 이동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DISTINCTION Hotel	
제3일 (12/22) 월	로토루아 마타마타 로토루아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 아그로돔 농장 방문하여 팜투어 중식 후 ▶ 스카이라인 곤돌라 및 루지 체험 마타마타로 이동 ▶ 호비튼 테마파크 방문 석식 후 로토루아로 이동 후 호텔 투숙	
				HOTEL : DISTINCTION Hotel	

제4일 (12/23) 화	로토루아 타우포 통가리로 황가누이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 와카레와레와 지열지대 마오리빌리지 탐방 타우포로 이동 ▶ 후카폭포 탐방 및 중식 ▶ 통가리로 국립공원 탐방 황가누이로 이동 후 석식 ▶ 황가누이 거리 탐방(현지 체험) 호텔 투숙 HOTEL : 151 London Lodge
제5일 (12/24) 수	황가누이 로토루아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 황가누이 강 탐험(스피드보트 체험) ▶ 듀리힐 엘리베이터 및 타워전망대 탐방 중식 후 로토루아로 이동 ▶ 레드우드 수목원(트리워크 및 반딧불 체험) 방문 석식 및 호텔 투숙 HOTEL : DISTINCTION Hotel
제6일 (12/25) 목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오클랜드로 이동 중식 후 ▶ 이든언덕 방문(오클랜드 시내 조망) ▶ 캘리달튼 해양생물 수족관 탐방 ▶ 오클랜드 거리 탐방(현지 체험) ▶ 석식 및 연수참가자 간담회 후 호텔 투숙 HOTEL : SOHO Hotel
제7일 (12/26) 금	오클랜드 오클랜드 인천	전용차량	08:00 KE412 11:45 수송버스 19:4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탑승 수속 뉴질랜드 오클랜드 공항 출발 인천 영종도 공항 도착 후 김포 숙소로 이동 호텔 투숙 HOTEL : 김포라마다호텔
제8일 (12/27) 토	인천 서울 제주	수송버스	09:00 11:10 12:25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탑승 수속 김포 공항 출발 제주 공항 도착 후 해산

Ⅲ. 연수국가 현황

□ 뉴질랜드 일반현황



- 수도: 웰링턴(Wellington)
- 면적: 27만km²(한반도의 1.2배)
- 인구: 516만명
- 언어: 영어, 마오리어
- 종교: 개신교(35%), 가톨릭(13%)
- 민족: 유럽계(68%), 마오리계(18%), 아시아계(17%), 남태평양계(9%)
- 화폐: 뉴질랜드달러(NZD, \$)

- 뉴질랜드는 마오리어로 ‘아오테아로아(Aotearoa)’, ‘희고 긴 구름의 땅’ 이라 불리며, 태즈먼해를 사이에 두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남동쪽 약 2,000km 지점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국토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북섬과 빙하와 피오르드 지형이 발달한 남섬,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 뉴질랜드의 원주민은 폴리네시아계 마오리족으로, 대체로 10세기 이후 타히티 인근 섬들에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오리족은 농경과 어로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이어왔으며, 감자·고구마·박류 등을 재배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 유럽인의 뉴질랜드 도착은 1642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벨 타스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1769년 제임스 쿡이 본격적인 탐사를 진행하며 영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840년에는 마오리족과 영국 대표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Treaty of Waitangi)』이 체결되어, 토지와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마오리족이 유지하고 통치권은 영국 왕실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 그러나 식민지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며 1860년대 마오리 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마오리족의 토지와 인구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영국 식민정부는 마오리 대표의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뉴질랜드는 1907년 영국 자치령, 1931년 영연방 회원국이 되었으며,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1893년 세계 최초 여성 참정권 부여, 1898년 노인연금제도 도입은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사회 개혁 사례이다.
- 195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유럽, 태평양 도서 지역,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이주로 인구와 문화가 다원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마오리 문화와 언어의 보존·계승,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강화, 다문화 사회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배경 속에서 뉴질랜드는 자연 존중, 인권,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하는 국가로 발전해 왔으며, 환경·생태 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 모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 방문도시 관련 정보

○ 오클랜드(Auckland) : 뉴질랜드의 관문도시

-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도시로, 약 1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교통·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뉴질랜드를 출입하는 내·외국인 대부분이 이용하는 오클랜드 국제 공항이 위치해 있어, 북섬의 관문이자 뉴질랜드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도시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 오클랜드는 1840년부터 1865년까지 약 25년간 식민지 시대의 수도였으며, 이 시기에 현재의 도시명이 정해졌다. ‘오클랜드(Auckland)’라는 이름은 당시 뉴질랜드 총독이었던 윌리엄 홉슨(William Hobson)이 자신이 존경하던 인물인 오클랜드 경(Lord Auckland, 1784~1849)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도시 곳곳에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언덕과 녹지가 분포해 있으며, 특히 마운트 이든(Mount Eden)과 같은 전망대에서는 와이테마타 항구(Waitemata Harbour)와 하우라키 만(Hauraki Gulf), 그리고 그 주변의 섬들이 어우러진 오클랜드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바다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은 오클랜드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 문화적으로 오클랜드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중심지로서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후 유럽계 이민자들의 유입과 아시아 지역 출신 이주민 증가로 다문화 사회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사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도시라 할 수 있다.
- 오클랜드는 이러한 역사·문화·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뉴질랜드 사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문 도시로서 본 해외연수의 주요 탐방지로 선정되었다.

○ 해밀턴(Hamilton) : 정원과 교육·연구의 도시

- 해밀턴은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Waikato) 지역의 중심 도시로, 농업과 교육, 연구 분야가 발달한 중소도시이다. 오클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뉴질랜드 최대의 농업 지대인 와이카토 평원을 배경으로 성장해 왔다.
- 특히 해밀턴은 와이카토 대학교(University of Waikato)가 자리한 교육 도시로, 학문과 연구 중심의 차분한 도시 분위기를 지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해밀턴 가든(Hamilton Gardens)은 다양한 문화권의 정원 양식을 주제로 조성된 공간으로, 자연·문화·조경이 결합된 대표적인 관광·교육 자원이다.
- 해밀턴은 대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도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방문지이다.

○ 로토루아(Rotorua) : 지열과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

- 로토루아는 북섬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화산 활동과 지열 현상이 활발한 지역이다. 도시 곳곳에서 유황 냄새와 함께 온천, 간헐천, 진흙 분출구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어 뉴질랜드의 독특한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 로토루아는 또한 마오리 문화의 중심지로, 전통 마을과 공연, 공예, 생활 양식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테 푸이아(Te Puia) 등은 마오리의 전통과 지열 자연환경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 자연 현상과 원주민 문화가 결합된 로토루아는 생태·문화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도시로, 뉴질랜드의 자연관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문지이다.

○ 마타마타(Matamata) : 농촌 풍경과 문화 콘텐츠의 도시

- 마타마타는 북섬 와이카토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소도시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 인상적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의 촬영지로 유명한 호비튼 무비 세트(Hobbiton Movie Set)가 위치한 곳으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 마타마타는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촌 지역이지만,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과 문화, 지역사회가 연계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 타우포(Taupō) : 호수와 자연 경관의 도시

- 타우포는 북섬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뉴질랜드 최대의 호수인 타우포 호수(Lake Taupō)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이다. 타우포 호수는 고대 화산 폭발로 형성된 거대한 칼데라 호수로, 뛰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한다.
- 인근에는 후카 폭포(Huka Falls)와 같은 자연 명소가 위치해 있으며, 풍부한 수자원과 경관을 바탕으로 관광과 레저 활동이 활발하다. 타우포는 자연을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닌, 보호와 공존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뉴질랜드의 자연관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이다.

○ 통가리로(Tongariro) : 세계자연유산 국립공원 지역

- 통가리로는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활화산과 화산호, 고산 지형이 어우러진 독특한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다.

- 이 국립공원은 마오리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자연 공간으로, 자연 보전과 원주민 문화적 가치가 함께 보호되고 있다. 통가리로 지역은 자연 보호, 생태 보전, 문화적 존중이 결합된 국가 차원의 관리 사례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 황가누이(Whanganui) : 자연과 법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도시

- 황가누이는 북섬 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뉴질랜드에 최초로 세워진 도시 중 하나이면서, ‘큰만’ 또는 ‘큰항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지역을 통과하여 흐르는 황가누이강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뉴질랜드에서 다섯 번 째로 큰 도시인 황가누이는 세계 최초로 강에 법적 인격을 부여한 사례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황가누이 강은 마오리족에게 조상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티 포우 투푸아(Te Pou Tupua)’ 라는 제도를 통해 강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생태법인 개념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 황가누이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연·문화·법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발전해 왔으며, 본 해외연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방문지이다.

IV. 주요 방문지

□ 오클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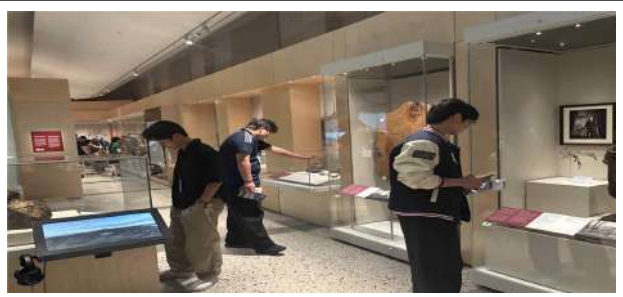
방문지	오클랜드대학교(The University of Auckland)
방문일자	2025. 12. 21.(일)
방문목적	뉴질랜드 고등교육 환경 및 대학의 학습·연구 분위기 이해
주요내용	환경·생태 연구를 포함한 뉴질랜드 대학의 교육 환경과 학생 중심 학습 문화 이해 및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영 사례 학습

- 오클랜드대학교는 뉴질랜드 최대 규모이자 최상위권 종합대학으로, 북섬 최대 도시 오클랜드 중심부에 위치한 고등교육 기관이다. 1883년에 설립된 이 대학은 오랜 역사와 함께 교육·연구 전반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학문과 연구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으로 인해 정규 수업 및 공식 기관 방문 대신, 재학생 가이드와 함께하는 캠퍼스 투어 형태로 오클랜드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강의동, 도서관, 학생 편의시설 등 주요 캠퍼스 공간을 탐방하며 뉴질랜드 대학의 교육 환경과 학습 여건을 직접 살펴보았다.
- 오클랜드대학교는 특히 환경·생태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보유한 기관으로, 캠퍼스 전반에 조성된 녹지 공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은 대학의 연구·교육 철학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한다.
- 아울러 오클랜드대학교는 지속가능한 캠퍼스 운영을 실천하는 기관으로, △캠퍼스 내 음식물 쓰레기 분리·퇴비화, △종이 사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자료 활용, △대중교통 이용 및 에너지 절약 설비 도입 등 일상 속 환경 실천을 대학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지속가능성이 제도뿐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가자들은 캠퍼스 투어를 통해 뉴질랜드 고등교육 기관이 지향하는 학문적 분위기와 연구 중심 문화, 그리고 학생 중심의 학습 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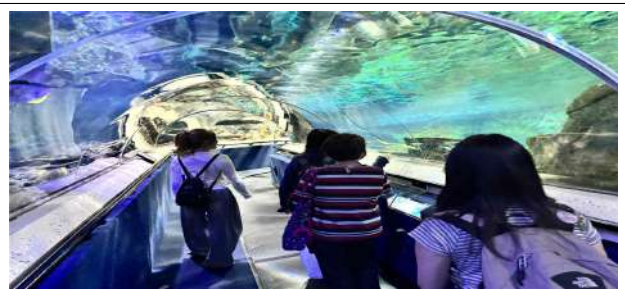
방문지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Auckland War Memorial Museum)
방문일자	2025. 12. 21.(일)
방문목적	뉴질랜드의 역사와 전쟁사, 문화적 정체성 이해
주요내용	뉴질랜드의 전쟁 참여 역사와 희생을 기리는 전시 관람 및 국가 형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특징 이해

- 오클랜드 전쟁기념관은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로, 오클랜드 도메인(Auckland Domain) 내에 위치한 국가적 문화·역사 기관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뉴질랜드 군인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으며, 현재는 전쟁사뿐 아니라 뉴질랜드의 역사, 자연환경, 원주민 마오리 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대표적인 종합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 박물관의 구성은 1층 마오리 홀, 2층 뉴질랜드 자연사 박물관, 3층 전쟁기념 박물관으로 뉴질랜드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과 다문화 사회로서의 정체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 참가자들은 오클랜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역사적 경험과 국가 정체성, 그리고 원주민 문화가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계승·존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쟁의 기억을 기념하는 공간과 마오리 문화 전시가 함께 구성된 점을 통해,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는 뉴질랜드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지	씨 라이프 켈리 탈튼 수족관(SEA LIFE Kelly Tarlton's Aquarium)
방문일자	2025. 12. 25.(목)
방문목적	해양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주요내용	남극관과 해양 생물 전시를 관람하며 해양 생태계의 특징과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성 학습

- 씨 라이프 켈리 탈튼 수족관은 1985년에 개장한 공공 수족관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해안가에 위치한 대표적인 해양 생태 교육 시설이다. 해양 탐험가 켈리 탈튼(Kelly Tarlton)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해저 터널을 도입해 바닷속을 걷는 듯한 관람 경험을 제공한 수족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이 수족관은 남극 해역과 뉴질랜드 주변 바다의 해양 환경을 재현한 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 생물 보호와 환경 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부에는 남극관, 해저 터널, 다양한 해양 생물 전시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실제 해저 공간을 탐험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펭귄, 상어, 가오리 등 다양한 해양 생물 전시는 해양 생태계의 구조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참가자들은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과 위협 요인을 살펴보며, 인간의 활동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지	마운트 이든(Mount Eden)
방문일자	2025. 12. 25.(목)
방문목적	화산 지형과 도시 경관의 조화 이해
주요내용	화산 분화구 지형을 관찰하고, 전망대에서 오uckland 시내와 항구 전경을 조망하며 자연 지형과 도시 발달의 관계 이해

- 마운트 이든은 뉴질랜드 오uckland 시내에 위치한 화산 분화구 언덕으로, 약 5만 년 전 형성된 사화산이다. 마오리어 이름인 마웅아화우(Maungawhau)는 ‘화우 나무가 자라는 산’이라는 뜻으로,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마오리족에게 중요한 생활·문화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 정상에는 깊고 원형에 가까운 화산 분화구가 보존되어 있으며, 이곳은 오uckland 도심에서 가장 높은 자연 지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정상에 오르면 오uckland 시내와 와이테마타 항구, 하우라키 만 일대의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자연지형과 도시가 어우러진 경관을 관찰할 수 있다.
- 마운트 이든은 자연 경관 감상뿐 아니라, 자연유산과 도시 생활이 공존하는 사례를 보여주는 장소로서, 참가자들은 분화구 지형을 직접 관찰하며 뉴질랜드의 지질학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연환경 위에 형성된 도시의 모습을 비교·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해밀턴

방문지	해밀턴 가든(Hamilton Gardens)
방문일자	2025. 12. 21.(일)
방문목적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정원 공간의 의미 이해
주요내용	세계 각국의 정원 양식을 주제로 조성된 공간을 탐방하며 정원을 통해 인간의 삶과 문화를 표현하는 방식 학습

- 해밀턴 가든은 뉴질랜드 북섬 와이카토 지역의 해밀턴(Hamilton)에 위치한 대규모 정원 단지로, 단순한 식물원 개념을 넘어 ‘정원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조성된 교육·문화 공간이다. 자연을 감상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 정원 양식을 통해, 정원이 지닌 사회·역사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 해밀턴 가든은 고대 문명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문화권의 정원 양식을 테마별로 구성하고 있으며, 각 정원은 특정 시대와 지역의 생활 방식, 철학, 자연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어 발전해 왔는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정원 공간을 비교·관찰하며, 자연을 단순한 조경 요소가 아닌 문화와 가치관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 로토루아

방문지	아그로돔(Agrodome)
방문일자	2025. 12. 22.(월)
방문목적	뉴질랜드 농업과 목축 산업 이해
주요내용	뉴질랜드 농업과 목축 산업의 특징 이해 및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 학습

- 아그로돔은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Rotorua)에 위치한 대표적인 농업·목축 체험 시설로,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농업과 1차 산업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관광 공간이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농축산 국가로, 아그로돔은 이러한 국가적 산업 특성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조성된 상징적인 장소이다.
- 아그로돔에서는 양털 깎기 시연, 다양한 양 품종 소개, 농장 운영 방식 설명 등 실제 농업 현장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뉴질랜드 농업이 자연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참가자들은 아그로돔을 방문하여 뉴질랜드 농업과 목축 산업의 특징, 그리고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 농업 활동이 환경·경제·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지	스카이라인 로토루아(Skyline Rotorua)
방문일자	2025. 12. 22.(월)
방문목적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레저 산업 이해
주요내용	곤돌라를 이용해 로토루아 전경을 조망하며 자연환경과 관광 산업의 연계 체험

- 스카이라인 로토루아는 세계 최초의 루지(Luge) 트랙이 조성된 장소로, 자연 지형을 활용한 레저·관광 산업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설의 역사는 1984년 공사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스위스의 곤돌라 시스템을 도입해 방문객들이 산 정상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곤돌라 정상에는 약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 함께 조성되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 스카이라인 로토루아는 1985년에 공식 개장하였으며, 루지 트랙 역시 1984년 트랙 건설을 시작해 1985년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후 방문객 증가와 시설 확장을 위해 1993년과 2001년에 추가 트랙이 설치되면서 현재의 다중 루지 코스를 갖춘 레저 시설로 발전하였다.
- 참가자들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관광·레저 시설의 발전 과정과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루지 체험과 곤돌라 이동을 통해 자연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뉴질랜드의 접근 방식을 직접 경험하였다.



방문지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빌리지(Whakarewarewa Māori Village)
방문일자	2025. 12. 23.(화)
방문목적	지열지대 마오리 전통 문화와 생활 방식 이해
주요내용	마오리 공동체 전통 생활 공간 탐방을 통해 지열 지형 체험 및 마오리족의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 학습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빌리지는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Rotorua)에 위치한 마오리 공동체 마을로, 지열 활동이 활발한 자연환경 속에서 실제 마오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통 마을이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라 아니라, 마오리족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살아 있는 문화 공간’ 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 마을 전역에는 간헐천, 온천, 증기가 피어오르는 지열 지형이 분포해 있으며, 마오리족은 이러한 자연환경을 삶의 일부로 활용해 왔다. 전통적으로 지열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난방에 활용하는 등,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 방식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다.
- 참가자들은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빌리지를 방문하여 마오리족의 전통 문화, 공동체 중심의 생활 방식, 자연을 존중하는 가치관에 대해 학습하였다. 또한 해설을 통해 마오리의 언어, 관습, 신앙,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며,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 문화가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 와카레와레와 마오리 빌리지는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지	레드우드 수목원(Redwood Forest)
방문일자	2025. 12. 24.(수)
방문목적	산림 생태계와 자연 치유 환경 체험
주요내용	수목원 내 산책로를 따라 걷기 탐방을 진행하며 숲 생태계의 역할과 자연 보전의 중요성 학습

- 레드우드 수목원은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Rotorua)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산림 지역으로, 공식 명칭은 와카레와레와 포레스트(Whakarewarewa Forest)이다. 이곳은 20세기 초 조성된 인공림과 자연림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뉴질랜드의 산림 관리 방식과 자연 보전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숲 체험 지역이다.
- 수목원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도입된 거대한 레드우드(삼나무) 숲을 비롯해 다양한 수종이 분포해 있으며, 잘 정비된 산책로와 트레일을 따라 걷기 탐방이 가능하다. 특히 숲 상부를 연결한 트리 워크(Treewalk)는 나무 사이를 공중 보행로로 이동하며 숲을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설로, 숲의 구조와 생태적 층위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참가자들은 울창한 숲과 높은 수목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자연의 소리와 경관을 관찰하며, 숲이 생태계 보전과 인간의 휴식·치유에 미치는 역할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 레드우드 수목원은 자연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보전과 관리의 대상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뉴질랜드의 환경 철학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생태·경관 체험의 깊이를 확장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마타마타

방문지	호비튼 무비 테마파크(Hobbiton Movie Set)
방문일자	2025. 12. 22.(월)
방문목적	자연환경과 문화 콘텐츠의 결합 사례 이해
주요내용	영화 촬영지를 탐방하며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문화 산업과 관광 자원화 사례 학습

- 호비튼 무비 테마파크는 뉴질랜드 북섬 마타마타(Matamata) 지역에 위치한 관광 명소로, 영화 「반지의 제왕(The Lord of the Rings)」과 「호빗(The Hobbit)」 시리즈의 실제 촬영지로 조성된 영화 세트장이다. 광활한 초원과 완만한 구릉지에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이 공간은, 영화 촬영 이후에도 원형을 유지하며 세계적인 문화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다.
- 호비튼은 인위적인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세트가 설계되어,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문화 콘텐츠를 구현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가 자연을 보호하면서도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해 지역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 참가자들은 영화 속 공간이 실제 자연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져 조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관광과 문화 산업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 타우포

방문지	후카 폭포(Huka Falls)
방문일자	2025. 12. 23.(화)
방문목적	수자원과 자연 경관의 가치 이해
주요내용	강력한 수량과 흐름을 관찰하며 자연 에너지와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

- 후카 폭포는 뉴질랜드 북섬 타우포(Taupō) 인근에 위치한 대표적인 자연 명소로, 타우포 호수(Lake Taupō)에서 흘러나온 와이카토 강(Waikato River)이 좁은 협곡을 통과하며 형성된 폭포이다. 폭포의 낙차는 약 11m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좁은 수로를 통해 흘러내리는 막대한 수량으로 인해 강한 물살과 압도적인 수력 에너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 후카 폭포는 초당 수백 톤에 이르는 물이 흐르며, 맑고 푸른 물빛과 거센 소용돌이가 어우러져 역동적인 자연 경관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특징으로 자연 에너지와 수자원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연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참가자들은 강력한 물살과 협곡 지형을 통해 자연의 힘을 체험하며,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공존하는 뉴질랜드의 환경 인식과 관리 방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후카 폭포는 본 연수에서 생태·경관 체험의 의미를 확장하는 중요한 방문지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통가리로

방문지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
방문일자	2025. 12. 23.(화)
방문목적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보전 관리 사례 이해
주요내용	화산 지형과 고산 생태계를 관찰하며 자연 보호와 원주민 문화가 결합된 국립공원 관리 체계 이해

-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뉴질랜드 북섬 중부에 위치한 국립공원으로, 1894년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제안에 의해 설립된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자연 보호와 원주민 문화 존중이 제도적으로 결합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 국립공원에는 루아페후 산(2,797m), 나우루호에 산(2,291m), 통가리로 산(1,967m) 등 활화산과 화산 지형이 분포해 있으며, 약 795km²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자연경관뿐 아니라 마오리족에게 신성한 성지로 인식되어 온 공간으로, 자연과 인간, 정신적 가치가 깊이 연결된 장소이다. 이러한 복합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이후 마오리 문화적 의미가 추가로 평가되어 1993년 세계문화유산 기준이 적용되며 세계 최초의 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지정되었다.
- 통가리로 국립공원은 자연·문화·법적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핵심 연수 방문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황가누이

방문지	황가누이 강 제트보트 투어(Whanganui River Jet Boat Tour)
방문일자	2025. 12. 24.(수)
방문목적	생태법인으로서의 황가누이 강 이해
주요내용	제트보트 투어를 통해 황가누이 강의 자연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강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보호하는 제도적 의미 학습

- 뉴질랜드 의회는 2017년 3월 15일,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하게 여겨 온 북섬의 황가누이 강(Whanganui River)에 대해 살아있는 인간과 동등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이로써 황가누이 강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닌 법적 주체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강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는 사람에게 가해진 행위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는 황가누이 강과 마오리족 간의 깊은 영적 유대와 오랜 역사적 관계를 반영한 제도적 결정으로, 자연 보호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된다.
- 황가누이 강은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긴 강으로, 통가리로 산 인근에서 발원하여 약 290km를 흐른 뒤 바다로 유입된다. 마오리족은 최소 600년 이상 이 강 주변에 터를 잡고 살아왔으며, 강을 삶의 일부이자 조상과 같은 존재로 인식해 왔다. 이들은 황가누이 강을 두고 “코 아우 테 아우아, 코 테 아우아 코 아우(Ko au te awa, ko te awa ko au)”, 즉 “나는 강이고, 강은 나다” 라는 표현으로 자신과 자연을 동일시한다. 마오리족에게 황가누이 강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보물, 즉 ‘타옹가(Taonga)’ 로 여겨진다.
- 황가누이 강의 법적 지위 인정은 약 160년에 걸친 마오리족의 권리 회복 노력과 투쟁의 결과이다. 정부와 마오리족 간의 공식 협상은 2009년에 시작되어 2014년 합의에 도달했으며, 2017년 법안 통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으로 인해 황가누이 생태범인(Te Pou Tupua) 관계자와의 공식 미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황가누이 강 인근에 거주하는 현지인(마크)이 운영하는 제트보트를 이용한 황가누이 강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관광 중심 구간을 넘어, 황가누이 강 상류의 자연환경과 실제 지역 주민의 삶의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 강을 따라 이동하며 가파른 협곡과 울창한 원시림, 고요한 물길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인공적 소음에서 벗어나 새들의 지저귀음과 자연의 평온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본 체험은 황가누이강이 왜 단순한 강이 아닌 자연·문화·범이 결합된 생태적 존재로 보호받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수 활동이었다.



방문지	듀리힐 엘리베이터 전망대(Durie Hill Elevator Lookout)
방문일자	2025. 12. 24.(수)
방문목적	도시와 자연의 공간적 관계 이해
주요내용	전망대에서 황가누이 시내와 강을 조망하며 자연환경의 조화로운 도시 형성 이해

- 듀리힐 엘리베이터 전망대는 뉴질랜드 북섬 황가누이 도심 인근 듀리힐(Durie Hill)에 위치한 전망 시설로, 1919년에 건설된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 언덕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땅속 엘리베이터 중 하나로, 황가누이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언덕 위 전망대에 오르면 황가누이 강과 시내 전경, 그리고 주변 자연지형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를 통해 황가누이 도시가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온 공간적 특성과, 자연환경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 이는 자연을 보호의 대상이자 도시 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는 황가누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또한 듀리힐 엘리베이터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함께해 온 역사적 기반시설로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참가자들은 이 공간을 통해 자연·도시·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다.



□ 도시 자유탐방

방문지	황가누이(Whanganui) / 오클랜드(Auckland)
방문일자	2025. 12. 23.(화) / 2025. 12. 25.(목)
방문목적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뉴질랜드 현지 체험
주요내용	현지 상점·거리 이용 및 시민들의 일상 관찰을 통해 뉴질랜드 생활 환경과 문화적 다양성 이해

- 도시 자유탐방은 정해진 방문지 중심의 일정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이 현지 도시의 일상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활동이다. 소규모 조별로 운영되어 참가자들이 스스로 동선을 계획하고, 도시 공간을 탐방하며 현지의 생활 환경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가자들은 도시 자유탐방을 통해 현지 상점, 마트, 거리, 공공 공간 등을 직접 방문하며, 뉴질랜드 시민들의 생활 방식과 도시 문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영어를 활용해 현지인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을 하는 등,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실생활 중심의 언어·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 도시 자유탐방은 단순한 자유시간을 넘어, 참가자들이 스스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학습 활동으로 연계되었다. 참가자들은 탐방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문화적 차이, 도시의 특징 등을 정리하며, 각 도시가 지닌 개성과 지역적 특성을 비교·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주체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고, 현지 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감각과 소통 능력을 기르고, 문화 이해와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V. 연수결과(평가)

□ 사업총평

○ 우수한 점

- 영어스피치 경진대회와 해외연수를 단계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선발 - 연수 -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재육성 모델을 구축함
- 사업 전반적 만족도는 98.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연수 운영 전반, 프로그램 구성, 교통·숙박, 인솔자 지원, 안전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생태·경관 체험, 체험형 프로젝트, 도시 자유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의 환경 인식, 글로벌 시민 의식, 진로 동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팀 미션과 패들렛 워크숍을 통해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며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협업 능력 강화

○ 부족한 점

- 참가자 겨울방학 기간 운영으로 크리스마스 연휴에 연수가 진행되어, 오클랜드 대학 방문 및 황가누이 생태법인(Te Pou Tupua) 방문이 기관 미팅이 아닌 체험 중심 활동으로 대체되는 한계가 발생함
- 생태·경관 체험과 체험형 프로젝트(루지, 농장 및 제트보트 체험 등)에 높은 만족을 보였으나, 뉴질랜드 역사·문화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했고, 현지인과의 직접 소통 중심 프로그램 비중 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인됨

○ 개선할 점

- 연수 시기를 조정하여 연휴·휴무 기간을 피하고, 마오리 역사·문화, 생태법인 등 핵심 주제와 연계된 기관 미팅 및 프로그램 편성 필요
- 마오리족의 역사·문화·세계관(자연관, 권리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현장 학습 - 사후 성찰이 연결된 학습구조 체계화 필요
- 단순 체험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환경 정책·제도·우수사례를 학습하는 심화형 글로벌 환경 리더 연수 프로그램으로 고도화 필요

○ 만족도 설문조사 요약

[글로벌 역량 및 환경 의식 향상]

-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향상: 100% 긍정 응답
- 국제적 감각 및 글로벌 시민 의식 향상: 100% 긍정 응답
- 진로 탐색 및 학습 동기 강화: 100% 긍정 응답

[영어스피치 경진대회-해외연수 연계 성과]

- 영어스피치 주제 적절성, 운영 공정성, 해외연수 연계성 100% 만족
- 경진대회 경험이 해외연수 참여 동기를 높였다는 응답 100%
- 신청 및 선발 과정 이해도 긍정 88.8%, 보통 11.1%(1명)
- 경진대회가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 88.8%, 보통 11.1%(1명)
- 선발 프로그램과 연수 과정의 교육적 연계성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

[운영 및 지원 체계 우수성]

- 사전 오리엔테이션, 인솔자 지원, 안전관리, 교통·숙박 만족도 100%
- 참가자 간 교류 및 팀 활동 만족도 100%

[참가자 수요 기반 개선 방향 도출]

- 만족도가 높았던 활동
 - 생태·경관 체험(자연체험, 걷기탐방, 전망 감상 등)
 - 체험형 프로젝트(농장, 제트보트, 문화 체험 등)
- 향후 확대 희망: 체험(전통문화 등) 프로그램(56.6%), 자유탐방(22.2%)

□ 사업 성과 및 제언

- 본 연수는 제주 청소년의 글로벌 환경 리더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크리스마스 연휴 운영으로 인해 핵심 학습 콘텐츠의 심화에 제약이 발생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임
- 특히 황가누이 생태법인(Te Pou Tupua) 사례는 본 사업의 핵심 학습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기관 미팅이 체험 활동으로 대체 되어 정책적·제도적 이해를 충분히 심화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성과로 분석됨

- 향후 연수는 연휴를 피한 일정 운영, 마오리족 및 생태법인 전문가 미팅, 환경 정책 기관(단체) 방문, 문화·역사 체험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정책·사례 학습 중심의 글로벌 환경 리더 연수 모델로의 고도화 필요

□ 참가자 소감(요약)

- (곽지효) 뉴질랜드 여러 장소들을 탐방하다 보니 광활하고 웅장한 자연에 압도당할 때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정말 크다고 느꼈던 걱정거리와 고민들이 아주 작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다. 왕가누이 강과 레드우드 수목원, 그리고 후카 폭포와 같은 대 자연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뉴질랜드가 자연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무엇보다 연수 팀원들과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다고 생각한다. 같이 많은 장소를 방문하고 팀 미션 등을 진행하면서 함께 유익한 연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 (김세운) 이번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를 통해 뉴질랜드의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단순히 정책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관광, 지역 공동체 전반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점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정책과 제도가 특별히 과시되기보다는, 일상과 교육, 관광, 지역사회 운영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환경 보호가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는 자연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는 제주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 (김소라) 이번 뉴질랜드 해외연수를 통해 영어를 단순히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긴장됐지만, 현지 가이드와 상점 직원, 숙소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점점 영어로 말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 길이 불편하더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이 인상 깊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편리함보다 자연과 공존하는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관과 시야를 넓혀 준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 (김예연) 경진대회에서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나 비슷한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본 친구들끼리 모여 가까운 나라도 아닌 뉴질랜드라는 먼 나라를 가는 것 자체가 신기했고 재밌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의 광활함을 느끼며 자연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자연은 우리가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 우리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것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와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아니라 마오리족이 근원이라 생각하는 대자연과 많은 동물들과 교감을 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 (김정욱) 자연과 가까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자연에 인격을 부여한 사례인 왕가누이강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 강이 마오리족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닌 삶과 정체성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연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번 연수는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 나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다시 한번 이 경진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해외 연수를 기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박이현) 이번 연수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을 위해서 내 행동을 신경 쓰며, 자연을 보존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잘 보존된 자연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것마저 파괴된다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광경들이었다고 생각하니 더 행동을 신경 써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 (서하율) 뉴질랜드는 평생기억남을 좋은 기억들을 간직할 수 있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와 나의 미래 또한 더욱 확신을 가질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뉴질랜드라는 나라 자체가 대회의 목적과 연수의 목적과 너무 적합하며 주제를 이해하는데에 너무 의미있고 적합했던 국가였다고 생각한다.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름다운 대자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자연을 어떻게 보존해야하는지를 너무 잘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전반적으로 쾌적했던 호텔과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흥미있는 일정 그리고 스테이크와 같은 맛있는 식사를 준비 해준 것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석지원) 뉴질랜드의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보고 자연을 단순히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느끼게 되었고 연수 중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과 조금씩 대화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제가 세계시민으로서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양서윤) 뉴질랜드 해외 연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환경보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은 언어 능력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 (허예은) 뉴질랜드 연수에 참여하여 자연환경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수험기간동안 ‘수능’ 을 위한 단기적인 목표를 향해 바쁜 생활을 하던 삶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 붙임 1. 참가자별 연수 결과보고서 각 1부(별첨)
2.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부
 3. 만족도 조사 설문지 1부
 4. 워크숍 활동 결과 1부. 끝.

붙임 2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인원	9명 응답(90%)	전반적 만족도	98.9점
------	------------	---------	-------

□ 연수사업 인식 및 이용경험

○ 정보 접근 경로: 지인 추천 55.6%, 학교 안내 44.4%

구분	학교안내	홈페이지·SNS	교사 등 관계자	지인 추천
9명 (100%)	5명 (55.6%)	4명 (44.4%)	-	-

○ 해외연수 참여 경험: 없다 77.8%

구분	있다	없다
9명 (100%)	2명 (22.2%)	7명 (77.8%)

○ 해외연수 참여 횟수: 1회 50%, 2회 50%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2명 (100%)	1명 (50%)	1명 (50%)	-

○ 해외연수 참여 기관 유형 *복수 선택 가능

구분	국가·지자체	학교	기업(단체)	공공기관	향토(지역)
2명 (100%)	1명 (50%)	1명 (50%)	-	-	-

□ 연수사업 동기 및 안내 만족도

○ 본 연수사업 참여 동기: 해외여행 경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77.8%

구분	글로벌역량강화	환경주제관심	어학역량강화	진로탐색	학교추천
9명 (100%)	7명 (77.8%)	-	1명 (11.1%)	1명 (11.1%)	-

○ 신청 및 선발 과정 이해도: 그렇다 88.8%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4명 (44.45%)	4명 (44.45%)	1명 (11.1%)	-	-

○ 충분한 정보 제공: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5명 (55.6%)	4명 (44.4%)	-	-	-

□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운영 만족도

○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주제 적절성: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7명 (77.8%)	2명 (22.2%)	-	-	-

○ 경진대회 운영 방식의 공정성 및 체계성: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4명 (44.4%)	5명 (55.6%)	-	-	-

○ 나의 생각 영어표현에 도움: 그렇다 88.8%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4명 (44.45%)	4명 (44.45%)	1명 (11.1%)	-	-

○ 경진대회 경험의 연수참여 동기 부여: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6명 (66.7%)	3명 (33.3%)	-	-	-

○ 연수 참가자 선발 방법으로 영어스피치대회 적절성: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5명 (55.6%)	4명 (44.4%)	-	-	-

○ 스피치대회 외 연수 참가자 선발 방법: 영어인터뷰 33.3%, 팀프로젝트 33.3%

구분	영어에세이	영어인터뷰	팀프로젝트	토론대회
9명 (100%)	1명 (11.2%)	3명 (33.3%)	3명 (33.3%)	2명 (22.2%)

□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해외연수 연계성

○ 영어스피치 경진대회와 해외연수의 연계성: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4명 (44.4%)	5명 (55.6%)	-	-	-

○ 경진대회 주제와 해외연수와의 연결성: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6명 (66.7%)	3명 (33.3%)	-	-	-

○ 경진대회 경험이 해외연수 활동 이해 도움: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5명 (55.6%)	4명 (44.4%)	-	-	-

□ 해외연수 운영 만족도

○ 해외연수 사전 오리엔테이션 도움: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6명 (66.7%)	3명 (33.3%)	-	-	-

○ 해외연수 프로그램 구성 연수 목적 부합도: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7명 (77.8%)	2명 (22.2%)	-	-	-

○ 해외연수 교통수단 및 숙박 만족도: 만족한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8명 (88.9%)	1명 (11.1%)	-	-	-

○ 연수 운영자 및 인솔자의 안내와 지원 만족도: 만족한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8명 (88.9%)	1명 (11.1%)	-	-	-

○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만족한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8명 (88.9%)	1명 (11.1%)	-	-	-

□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수요조사

○ 연수 중 만족도 높았던 활동

- 생태체험(자연체험, 걷기탐방, 전망 감상 등) 33.3%
- 체험형 프로젝트(농장, 제트보트 체험 등) 33.3%

구분	생태·경관체험	문화·역사탐방	체험형프로젝트	도시자유탐방	참가자 간 교류
9명 (100%)	3명 (33.3%)	1명 (11.1%)	3명 (33.3%)	-	2명 (22.2%)

○ 향후 비중을 늘렸으면 하는 활동: 체험형프로그램(전통문화 등) 56.6%

구분	생태체험	문화·역사탐방	대학·기관방문	체험프로그램	자유탐방	팀프로젝트
9명 (100%)	-	2명 (22.2%)	-	5명 (55.6%)	2명 (22.2%)	-

○ 제안하고 싶은 활동

- 현지인들과 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는 활동

□ 학습 효과 및 성장 성과

○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향상: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6명 (66.7%)	3명 (33.3%)	-	-	-

○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시민 의식 향상: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6명 (66.7%)	3명 (33.3%)	-	-	-

○ 진로 탐색 및 향후 학습 동기 긍정적 영향: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7명 (77.8%)	2명 (22.2%)	-	-	-

○ 참가자 간 교류 및 팀 활동 경험 만족: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9명 (100%)	-	-	-	-

□ 사업 전체 만족도 및 추천 의향

○ 경진대회 및 해외연수 포함 전반적 만족도: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8명 (88.9%)	1명 (11.1%)	-	-	-

○ 경진대회 및 해외연수 포함 전반적 만족도: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8명 (88.9%)	1명 (11.1%)	-	-	-

○ 다른 학생 및 후배 추천 의향: 그렇다 100%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혀 아니다
9명 (100%)	8명 (88.9%)	1명 (11.1%)	-	-	-

□ 자유의견

○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

-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해외연수 정말 뜻깊은 경험이었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025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만족도 설문조사

본 설문지는 「2025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설문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석 및 향후 사업 개선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5. 1. 1.(목) ~ 2026. 1. 5.(월)
- 조사대상: 2025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참가자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링크를 통한 응답
- 문 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미래인재육성부 ☎ 064-726-9912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삼다수재단 이사장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연수사업 인식 및 이용 경험]

1. 본 연수사업(경진대회+해외연수)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 ① 학교 안내(공문, 가정통신문 등)
- ② 홈페이지 또는 SNS(카카오톡 채널 등)
- ③ 교사·학교 관계자 안내
- ④ 지인 추천 또는 주변 사람
- ⑤ 기타(직접 입력)

2. 본 연수사업 이전에 유사한 해외연수 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4번 문항으로 이동)

3-1. 최근 2년 이내 몇 번의 해외연수에 참여했나요?

- ① 1회 ② 2회 ③ 3회 이상

3-2. 어떤 기관(단체)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나요? (복수 선택 가능)

- ① 국가 또는 지자체 ② 학교 ③ 기업(단체)
④ 공공기관 ⑤ 향토(지역) ⑥ 기타()

4. 본 연수사업(경진대회+해외연수) 참여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해외 경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② 환경·생태 주제에 대한 관심
③ 영어·발표 역량 강화
④ 진로 탐색 및 자기 성장
⑤ 학교 또는 기관 추천
⑥ 기타(직접 입력)

5. 연수사업(경진대회 및 해외연수) 신청 및 선발 과정(안내, 절차, 일정 등)은 이해하기 쉬웠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6. 연수 참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준비사항 등)가 충분히 제공되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운영 만족도]

7. 영어스피치 경진대회의 주제는 연수사업 취지에 적절하였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8. 경진대회 운영 방식(접수, 심사, 진행절차 등)은 공정하고 체계적이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9. 영어스피치 경진대회는 나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학습 효과 및 성장 성과]

24. 본 사업을 통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5. 본 사업은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시민 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6. 본 사업 참여는 나의 진로 탐색 및 향후 학습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7. 참가자 간 교류 및 팀 활동은 의미 있는 경험이었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사업 전체 만족도 및 추천 의향]

28. 영어스피치 경진대회 및 해외연수를 포함한 본 사업 전반에 만족하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29. 본 사업을 다른 학생이나 후배에게 추천하도 싶나요?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전혀 아니다

[자유의견]

30.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김보현 11/06/2025 ⇄

2025 제주삼다수 청소년 글로벌리더 해외연수

뉴질랜드 연수 이야기

12/21(일)

⇄ 김보현 11/6/25 7:14오전

'나'를 소개해줘!

연수 첫날입니다. 함께할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 주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 내용: 관심사, 취미, 좋아하는 것 등 나의 이야기와 연수에 임하는 각오
- 형식: 나를 표현하는 단어 3가지 + 나의 각오
* 12/21(일) 아래 (+) 클릭 후 제목에 단어 3개, 내용에 각오 작성
-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또는 "이모티콘", "댓글"도 남겨주세요.

0 0



*제출기한: 저녁식사 전까지

⇄ 김보현 11/6/25 7:31오전

웹툰, 초밥, 야구

뉴질랜드의 크리스마스를 맘껏 느껴보고 싶대!

0 0

⇄ QUIRKY BEE 12/20/25 7:03오전

운동, 게임, 음악

뉴질랜드 완전정복

0 2

김보현 12/20/25 9:09오전
이름을 알려주세요~

김예연 12/20/25 9:12오전
김예연이요!

⇄ 양서윤 12/20/25 7:03오전

음악,그림,가을

뉴질랜드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당.

0 0

⇄ 김정욱 12/20/25 7:29오전

축구 음악 게임

뉴질랜드 즐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즐기자

0 0

⇒ VALIANT FLY 12/20/25 9:19오전

곽지효

음악 화이팅 ENFP

뉴질랜드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자!

0 0

⇒ 박이현 12/20/25 9:19오전

노래, INFP, 영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며 맘껏 즐기자!!

0 0

⇒ 김소라 12/20/25 9:20오전

음악, 여행, ISTP

기대되는 썸머 크리스마스!!

0 0

⇒ 허예은 12/21/25 2:57오전

노래 ISTP 여행

뉴질랜드 전부 눈에 담고 가자!!

0 0

⇒ 김세운 12/21/25 7:17오전

배구 음악 ISTJ

다들 다치지마 말자

0 0

⇒ 석지원 12/21/25 7:21오전

음악, 영화, 웹툰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 보고 싶다

0 0

⇒ 김보현 12/21/25 8:47오전

영화 여행 영어

뉴질랜드 또 올거니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0 1

김보현 12/21/25 8:47오전

서하음

⇒ VALIANT TIGER 12/21/25 9:14오전

도전, 글로벌리더, 추억

여러분들 도전정신에 칭찬과 감사드리며,

제1기 삼다수재단 글로벌리더로서
늘 자부심과 좋은 기억 가져주시길..
일주일 즐거운 좋은 추억 많이 쌓기를 기원합니다!

Q1

Responsible Buffalo 12/21/25 9:15오전
제주삼다수재단 강승희입니다~

★팀미션(12/21)

☞ 김보현 11/7/25 2:06오전

어디일까요?

첫번째 팀미션입니다.

먼저 "팀명"을 정하고, 설명하는 장소에서
팀별 단체사진 촬영 후 정답을 제출하세요!

- 제출형식: (제목) 팀명 + 사진 첨부 + (내용) 장소명과 소감

*사진에는 장소와 팀원 모두가 나와야 함

Q. "세계 여러 나라와 시대의 정원 문화
와 삶의 방식을 주제로 구성된 이곳은?"

Q0



☞ 양서윤 12/21/25 5:06오전

팀명:와카

고대 이집트 가든에서 사진을 촬영했다.
이집트의 벽화를 잘 실려두어서 멋지다!

A:해밀턴 가든

Q0



☞ 키워세 12/22/25 12:03오후

키워세

다양한 컨셉의 매력으로 관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장소이다

A. Hamilton Garden

Q0



☞ 심소수 12/23/25 5:26오전

삼소수

여러가지 문화의 특징들을 잘 살린 정원들을 보니 신기했다.
해밀턴 가든

📷



12/22(월)

☞ 김보현 11/6/25 8:16오전

오늘의 한 장

- 주제: "뉴질랜드, 너란 녀석"
- 내용: 오늘 하루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감정
- 형식: 사진 1장 + 이유
-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또는 "이모티콘", "댓글"도 남겨주세요.

❤️ (1) 🍌 (1) 📷 1

김정욱 12/22/25 10:59오전



경치가 정말 이뻐요 🍌🍌



*제출기한: 저녁식사 전까지

양서윤 12/22/25 11:02오전

스카이라인 루지

생각보다 훨씬 스릴넘치고 도파민 터지는 체
험이었다! 다음엔 긴 코스도 도전하고 싶다.

❤️ (1) 🌟 (1) 🗨️ 0



석지원 12/22/25 11:07오전

호빗튼

건물들이 영화에서 봤던것과 동일해서 신기했다.

❤️ (1) 🌟 (1) 🗨️ 0



김세윤 12/22/25 11:43오전

Agrodome

He's a chill guy-손에 먹이가 있던 말든 별로 개의치 않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침착하다

❤️ (1) 🍌 (1) 🗨️ 0



김예연 12/22/25 7:50오후

김예연

알파카가 와서 머리를 부본는데 털이 굉장히 부드러움을 뽐소 느낄 수 있어서 인상 깊었다!

🍌 (1) 🗨️ 0



👤 **곽지효** 12/22/25 7:52오후

리프트

루지를 다시 타러 올라갈 때 리프트를 탔는데 탁 트이는 경치를 볼 수 있어서 너무어어어무 좋았습니다.

👍 (1) 0



👤 **허예은** 12/23/25 5:04오전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다!

👍 (1) 0



박이현 12/23/25 5:05오전

게임

어제 다 같이 게임해서 너무 재밌었
어요! 진짜 더 친해진 거 같아서 🙌

😊 (1) 0 0



하물 12/23/25 5:07오전



❤️ (3) 0 0



김소라 12/23/25 8:19오전
 평화롭게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경험이 인상깊었다.
 0 0



20251222_110101

★팀미션(12/23)

김보현 11/6/25 8:42오전
Whanganui Edition

- 주제: "한 줄로 말하는 왕가누이"
- 내용: 팀별 왕가누이 시내 자유탐방 중 의미 있어 보이는 장소 또는 왕가누이다운 순간을 기록
 *사람, 강, 거리, 자연, 공공조형물, 전망포인트 등 중 하나 이상 포함
 *사진에는 장소와 팀원 모두가 나와야 함
- 형식: 사진 1장 + 감상
-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또는 "이모티콘", "댓글"도 남겨주세요.



0 0

키위새 12/23/25 9:03오전
키위새
 엄청 넓고 멋진 왕가누이 강!!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요 🥰👉
 🌟 (6) 0 0



⇒ 양서윤 12/23/25 9:03오전
호텔 근처 철도/와카와카

👍 (2) 0



도심 한복판에 철도가 깔려있어서 신선했다!

⇒ 삼소수 12/23/25 9:07오전
황가누이는 아주 좋은 자연환경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진에서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 (3) 0



12/24(수)

⇒ 김보현 11/6/25 8:00오전

오늘의 한마디

- 주제: "자연이 나에게 말을 건다면.."
- 내용: 뉴질랜드 자연, 황가누이 강에 대한 소감
- 형식: 나의 생각, 느낀점
- 다른 친구들의 게시물에 "좋아요" 또는 "이모티콘", "댓글"도 남겨주세요.

0



☞ 양서윤 12/24/25 8:52오전

뉴질랜드

뉴질랜드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웠고, 핑기누이 강은 길이만큼 오랫동안 사람들과 살아온 강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 (1) 0

☞ 김세윤 12/24/25 8:44오전

김세윤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신선한 생각이 이토록 아름다운 뉴질랜드의 자연경관을 만든 것 같다. 자연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오랜만이라 굉장히 좋았다. 은퇴 후에 언덕 위 집에서 양과 개를 키우며 낭만 있게 살고 싶다.

👍 (2) 0

☞ RELIABLE BARRACUDA 12/24/25 10:18오전

곽지효

광활한 자연 속을 계속 보다보니 나는 지구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같다고 느꼈다. 사소한 고민들은 나만큼 아무 것도 아니기때문에 내가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낀 하루였다. 뉴질랜드에서 평생 살고 싶다!!!!

👍 (1) 0

☞ 김예연 12/24/25 8:19오후

자연을 자신들의 어머니로 삼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핑기누이 강에 인격을 부여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다. 이번 에 직접 보며 광활한 자연을 직접 느끼게 되었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인간이 감히 자연이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1) 0

☞ AGILE AARDVARK 12/25/25 6:33오전

김정욱

뉴질랜드의 자연은 양피와 같다.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날만큼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핑기누이에서 보트 체험과 뉴질랜드의 자연과 함께한 기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나라이다

👍 (1) 0

☞ 허예은 12/25/25 7:28오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걸 넘어 인간이 자연을 위해 살아간다고 느낄만큼 자연이 아름다웠고 신기했다

👍 (1) 0

☞ 하을 12/26/25 11:12오후

뉴질랜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멈추지않고 이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인 간이 자연과 평생을 공존할 수 있을지를 행동으로 그리고 법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고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뉴질랜드는 환경측면에서는 이런 자세를 지닌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 (2) 0

☞ 석지원 12/27/25 1:55오전

뉴질랜드가 강을 인격체 정도로 존중해준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고 이렇게 존중해준 만큼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보기 좋았다.

👍 (1) 0

↳ 김소라 12/27/25 1:59오전
뉴질랜드의 자연이 인위적이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라 더 웅장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끝없는 초원과 맑은 하늘을 보며 마음까지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다.

👉 (1) 0 0

↳ 박이현 12/27/25 2:25오전
박이현
크고 웅장한 활기누이 강을 보니 느껴지는 게 많았다. 그냥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사람과 깊게 얽여 있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되고 느끼게 되었던 것 같다.

👉 (1) 0 0

★팀미션(12/24)

↳ 김보현 11/7/25 2:57오전
어디일까요?
세번째 팀미션입니다.
설명하는 장소에서 팀별 단체사진 촬영 후 정답을 제출하세요!
• 제출형식: (제목) 팀명 + 사진
첨부 + (내용) 장소명과 소감
*사진에는 장소와 팀원 모두가 나와야 함

Q. "키가 매우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숲 위를 걷는 공중산책로가 인상적인 이곳은?"

0 0



↳ 와카팀 12/24/25 8:22오전
와카팀
거대한 나무 사이로 흔들다리를 지나는 느낌이 새로웠다...
A: 레드우드 수목원

👉 (2) 0 1

김세운 12/24/25 8:44오전
흔들렸다



- 1) 뉴질랜드 곳곳을 방문하는 때 순간이 즐거웠고, 행복했다. 앞으로 뉴질랜드의 정신처럼 자연을 가까이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겠다!
- 2) 5일간 함께 지내면서 많은 정이 생긴 것 같다. 친하게 지내줘서 고맙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다시 만날 기회가 오면 정말 좋겠다.☺

👉 (3) 0 0

👉 김예연 12/25/25 1:01오후

- 1) 왕거누이 마을을 자율적으로 탐방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뉴질랜드처럼 우리나라도 자연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보려 하겠다.
- 2) 정기적으로 만남시다.

👉 (1) 0 0

👉 김세운 12/25/25 7:07오후

김세운

1.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창밖으로 보이던 자연경관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절벽 아래로 펼쳐진 장관, 멀리 보이는 만년설이 뒤덮인 산, 넓게 펼쳐진 초원과 언덕까지 모두 뉴질랜드가 지닌 순수한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 같다. 자연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함께 지켜야 할 존재로 존중하고, 느린 속도 속에서도 균형과 여유를 유지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삶의 방식 또한 엿볼 수 있어 좋았다. 나 역시 주변 환경과 삶의 속도를 돌아보며, 더 성숙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2. 다친 사람 없이 귀국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1) 0 0

👉 허예은 12/26/25 11:05오후

- 1.어딜가든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롭고 친절한 사람들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언지 하나 안 보이는 푸른 하늘과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해준 사람들이 좋았다. 나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 2.하루종일 함께 다니며 마음이 맞는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서 너무 좋았다. 꼭 다시 또 만나자!

👉 (1) 0 0

👉 허을 12/26/25 11:07오후

- 1.이번연수에서 가장 기억남는 순간을 하나만 고를 수가 없습니다!정말 방문한 모든 장소와 사소하게 지나친 거리모두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눈에 담았 던 것 같습니다!😭
- 2.처음에는 너무너무 서로 어색했지만 가면갈수록 잠도안자며 놀았던 게임들...평생 기억 날 것 같습니다!!다음에 미래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두번째 뉴질랜드 여행을 가봅시다!!!!

👉 (1) 0 0

👉 AWESOME SQUIRREL 12/27/25 12:01오전

곽지효

- 1)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매우 많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왕거누이 강에서 보트를 타고 난 후, 개들과 함께 우유와 쿠키를 먹었던 것이다. 날씨가 좋고 뉴질랜드의 생태환경을 직접 체험하였던 기분이라서 가장 인상깊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느꼈다.
- 2) 정말 행복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생일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같이 크리스마스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네요. 꼭 만남시다!!! 앞으로 알길이 창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아자스!**

👉 (1) 0 0

👉 BENEVOLENT OWL 12/27/25 12:05오전

김정욱

1. 이번 연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질문을 보고 순간 '멈칫' 하였다. 과연 내 인생에서 가장 활황했다고 할 수 있었던 5일을 단 한순간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아마 나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겐 정말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에 남았다. Auckland Uni. War Memorial Museum, Agrodome, Hobbiton Movie Set, Whakarewarewa, Huka Falls, Whanganui River, Durie Hill Elevator, Redwoods Glowworms, Eden Hill

👍 (1) 0

김정욱 12/31/25 6:11오전

등등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이 아름다운 나라인 뉴질랜드에서 하게 되어 너무 영광이었다. 꼭 다시 이 나라를 방문해 다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놀아요.

⇒ 박이현 12/27/25 1:57오전

박이현

1. 배를 타고 활가누이 강을 가로질러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봤던 자연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만큼 거대하고 웅장했다.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 자연을 보기 힘들 뿐더러 직접 바람을 느끼며 보았을 때의 느낌이 너무 맛있고 좋아서 잊을 수 없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가 자연을 보존하려 노력해야만 다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행동들에도 내가 봤던 자연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2. 사전 만남을 가졌을 때 너무 어색해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고, 앞으로의 여정이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너무 따뜻하고 재밌는 친구, 언니, 오빠들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 하루 하루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가서 좋고, 나중에도 꼭 다시 만나 이번 연수를 추억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다.

👍 (1) 0

⇒ 김소라 12/27/25 1:59오전

1) 빠르게 언덕을 내려오며 속도를 느낄 수 있었던 루지 체험이 가장 인상 깊었다.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 더 즐거운 경험이었다.

2) 수고하셨습니다!

👍 (1) 0

⇒ 석지원 12/27/25 8:51오후

1) 이번 연수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이자 경험이고 아마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아닐까 싶어 하나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2) 연수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1) 0

